

경제

■ 일본 대지진...국내 경제는

잘나가던 對日수출 타격 우려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잇따른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졌다.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2월까지 대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38억2854만달러)에 비해 47.7% 급증한 56억538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일년새 1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월 들어서도 11일까지 대일본 수출은 12억4000만달러로 52.6% 급증한 반면, 수입은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일본의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무역적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일본 교역은 지난해 수출 282억달러, 수입 643억달러로 30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LCD 등 전자전자제품과 석유·철강 제품 등의 대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무역적자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연합뉴스

K5, 국제 디자인상 최우수상

스포티지R도 본상 수상

기아자동차는 15일 K5(수출명 옵티마)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1 레드닷 디자인상' 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5와 함께 스포티지R(수출명 스포티지)도 이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인정받는 레드닷 디자인상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제품의 디자인 혁신성과 기능성 등에 따라 매년 분야별 수상작을 결정한다. 올해 제품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0개국 1700여개 업체에서 4433개의 제품이 출품돼 부문별로 경합을 벌였다. 기아차 쏘울이 2009년 한국차로서는 처음으로 이 부문 장려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유럽 전략 차종인 벤자가 본상을 받았지만,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K5가 처음이다. K5와 스포티지R는 지난해에도 세계적 권위의 '2011 iF 디자인상'과 미



K5



스포티지R

국 '2010 굿 디자인 어워드', 우리나라 '2010 우수디자인(GD)상' 등을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감원 "7조원대 日 자금, 긴급 회수는 없을 것"

일본이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일본의 한국 주식 보유액은 6조6078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채권 투자 규모는 이보다 더 적다. 지난달 말 기준 일본의 우리나라 채권 보유규모는 전체 외국인 채권 보유규모인 74조1923억원 중 1%에 해당하는 7082억원이다. 일본계 주식 투자자금과 채권 투자자금을 모두 다 합쳐도 7조3500

억원(70억달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계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일시에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일본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 엔·달러 환율 향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일본 중앙은행은 14일 7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5조 엔으로 다시 자금 투입 규모를 늘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는 1달러에 81엔대 후반에서 82엔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일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체할 재정을 확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계가 우려했던 엔저(엔·달러 상승) 현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시장 패닉상태...코스피지수 47P 급락

일본의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국내 금융시장을 장중 한 때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잇따른 폭발 사고와 도쿄 등에서의 방사능 물질 검출이 공포감을 유발하고 투자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킨 결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7.31포인트(2.40%) 하락한 1923.92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13.54포인트(2.69%) 내린 489.44로 작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500선 밑으로 내려섰다. 코스피는 개장 초반 전날보다 4.41포인트(0.22%) 하락한 1966.82

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4호기에서 수소폭발로 보이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가 넘게 급락해 1,900선 밑으로 떨어

지기도 했다. 장 후반 들어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추정되는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낙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2300억원,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5223계약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별다른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인 16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연합뉴스

무역수지 '흑자행진'

13개월 연속 이어나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가 지난달에도 흑자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11년 2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 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2월 대비 16.9% 증가한 386억1000만달러, 수입은 16.4% 늘어난 361억5000만달러로 24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작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은 주력품목인 석유제품(57.5%), 승용차(24.7%), 기계류 및 정밀기기(34.1%), 화장품(27.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은 10.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일본 수출 증가율이 38.4%로 주요 수출대상국 중 가장 높았고, 동남아(28.3%), 중국(20.6%)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수입은 중동의 정정 불안으로 원유 도입단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원자재 수입이 228억달러로 21.8% 증가했다. /연합뉴스



통계자료 업무 협약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종국)와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정본)은 15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신속·정확한 통계자료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 줄었다

195만명 취업...3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전됐음에도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취업자 수는 2382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만3000명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 300만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19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작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정례회의에서 정

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30대 그룹의 신규채용을 전년보다 31.2%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체 대기업 일자리는 도리어 감소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65곳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연합뉴스



러시아 출시 LG 슬림형 냉장고 LG전자가 러시아 등 유럽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폭이 좁고 키가 큰 슬림형 냉장고. LG전자 직원이 손을 들어 높이를 가늠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황사마스크 한번 쓰고 버려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철 황사를 대비해 황사방지용 마스크 사용법, 점안제 고르는 법, 콘택트렌즈 관리법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식약청이 허가한 '의약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미세한 입자를 포집하는 비말, 공기 새는 누설률, 마스크 착용 시 내부 저항 등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능이 보장된다. 또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회용이어서 재활용하면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빨아서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상인 재해보상 쉬워진다

재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손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으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종전에는 구제 대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한정돼 있어 소규모의 재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연합뉴스

"하남 부영아파트 임대갈등 해결

광산구청 분쟁조정위 가동해야"

최경미 광산구의원 주장

광주 광산구의회 최경미 의원은 15일 "하남부영 1·2차 아파트 1500여세대 주민들이 (주)부영의 '분양전환' 통보에 임대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광산구청장은 구청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건설사와 임차인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와 수안부영

1·2차 아파트 총 2300여 세대를 분양 아파트로 2008년 건설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전월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조건으로 임주를 받았다"며 "임차인들 대부분은 서민으로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임주했고, 계약을 재연장해 최소 4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주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부영은 분양가 1억5600만~1억6600만원으로 '임대승계를 중단하고 분양 전환한다'는 통보를 시작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갑작스런 분양통보와 높은 분

양가에 당장 주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영은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협상을 요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세대마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23.92 (-47.31)
▲ 코스닥지수	489.44 (-13.54)
▲ 금리 (국고채 3년)	3.57% (-0.07)
▲ 원·달러 환율	1,134.80원 (+5.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